

2025. 10. 24 (금)

中 15차 5개년 계획: 기술 캐치업을 넘어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 건의안이 공개되었다. 건의안은 주로 목표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정량 목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양회 이후에 제시된다.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건의안에 주목했던 포인트로는 1)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와 강도, 2) 기술 자립의 방향, 3) 전통산업 구조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반 건의안의 구성을 보면, 중국의 최우선 정책 핵심은 여전히 기술 자립 및 첨단 제조업 육성이었다. 특히 '30년까지 "기술의 자립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핵심 기술의 돌파"를 강조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앞으로 5년이 1)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의 중요한 시기이고, 2) 기술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제재가 더욱 커질 것이며, 3)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여전히 기술 자립에 관한 정책 지원에 주목해야 하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바이오, 휴머노이드 등 미래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양은 지난번과 같이 세번째로 강조되었다. 유효 투자와 소비 확대를 같이 강조했고, 사회 안전망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건의안에서 '취업' 키워드 언급 횟수가 지난번보다 많아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다만 부양 강도나 방법론에 대한 서술이 기대 대비 약해 추후 세부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중국은 대규모 부양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관해 아직 특별히 강조된 문단은 없었다. 현대화 산업 분야에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언급했고,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요구했지만 전반 탈탄소 정책의 중요도는 지난번 대비 소폭 하락했다. 7월부터 강화된 반내권 움직임 대비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기조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내년 최종안에서 에너지 소모효율 등 지표를 통해 강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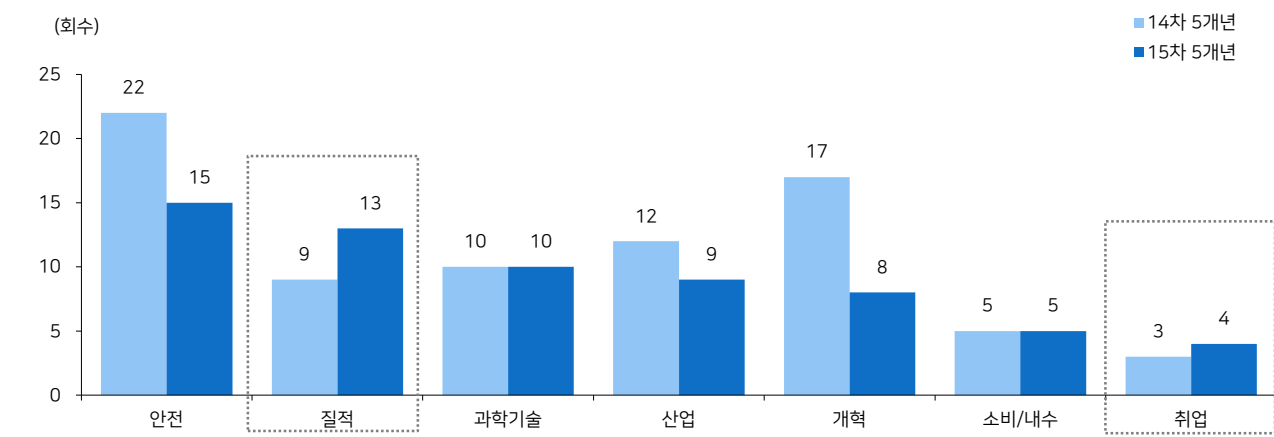
그 외, 대외개방 중요도가 9위에서 4위로 대폭 상향되었다. 다극적 체제에서 대외 개방을 통해 다변 무역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 지난번 대비 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 기초 변화

구분		14차 5개년 (2021-2025)	15차 5개년 (2026-2030)	기초(표현) 변화
주요 목표		1)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 병행. 2) 경제구조 개선, 혁신 능력 제고	1) 질적 성장의 뚜렷한 제고, 2) 기술자립 및 핵심기술 돌파, 3) 국제영향력 대폭 제고	핵심기술 돌파 및 국제 영향력 제고 추가
1	현대화 산업 시스템	경제 효율성과 핵심 경쟁력 제고	-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체계 형성 -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미래산업 육성 추가
2	기술 혁신	- 기술 자립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승격 - 기술강국을 위한 제도 건설, 인재 육성	- 원천·핵심기술 자립을 강화 - 시스템 효율화 통해 산업고도화 본격 실현	원천 및 핵심기술 자립 강화
3	내수 확대	-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 결합 - 국내와 해외 쌍순환 추진	- 유효투자 확대, 소비 진작 - 새로운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 형성	투자와 소비 확대 강조
4	제도 개혁	- 시장 효율과 정부 역할 결합	- 매크로 관리 능력 제고 - 모든 경제주체의 활력 제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표현으로 변화
5	대외개방	- 더 넓은 범위의 대외개방 시행	- 대외개방 확대, 다변무역체제 수호 - 새로운 국제 원원 관계 구축	중요도 상승 (9위 → 5위)
6	농업현대화	- 농촌 진흥, 탈빈곤 연결	- 도농간 융합 촉진, 탈빈곤 성과 다지기	동일 기초
7	지역·도시화 전략	-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 신형도시화 추진	- 지역간 융합 발전 강화 - 해양의 이용과 개발 강화	해양 경제 추가
8	문화·이념	- 문화강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강조	- 문화혁신능력, 중화문명 전파력 강조	문화강국에서 문명 소프트파워, 'AI시대 문화혁신' 방향 강조
9	사회·민생	- 국민 생활의 질 제고, - 사회안전망 보장 시스템 개선	- 교육, 의료, 주택, 출산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공동부유 실현	사회안전망 확대 의지 강화
10	환경·탄소 정책	- 녹색 발전 추진	-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 가속화	중요도 하락 (8위 → 10위)
11	국가안보	- 국가안보의식 강화 - 각 분야와 국가안보를 연결	- 주요 분야의 국가안보력 건설 강화 - 공공분야 안보능력 제고	동일 기초
12	군사	- 국방력과 군대의 현대화 추진 - 27년 건군 100년 목표 달성토록 노력	- 27년 건군 100년 목표 제때에 달성 - 첨단 전투 역량 구축 가속화	동일 기초

자료: 국무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 내 키워드 언급 횟수



자료: 국무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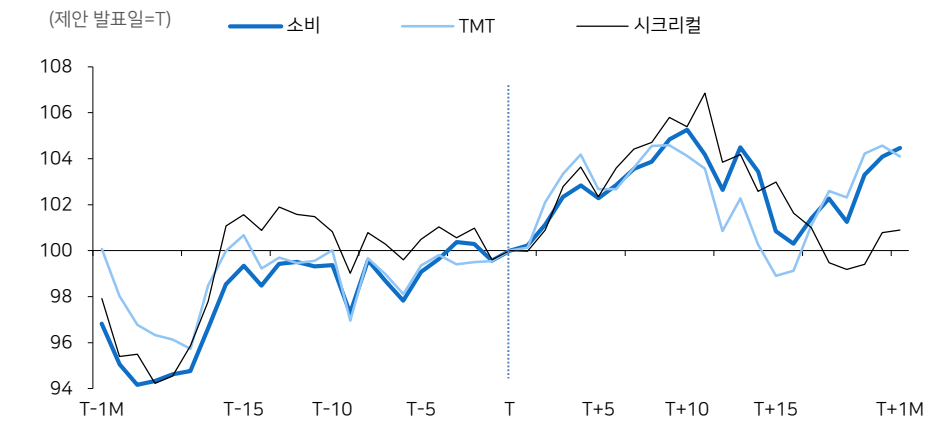
4중전회 이후 중국증시 투자전략: 보다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필요

전반적으로 이번 5개년 계획안의 내용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기술 자립은 지난번 14차 5개년 계획보다 강조했던 기조의 연장선이었고, 내수 부양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다만 디플레이 탈출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내수 부양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 일주일 뒤에 발표될 건의안 전문과 내년 3월 양회 이후에 발표될 최종안을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하반기 가장 주목했던 4중전회가 끝났다. 과거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통상 이런 이벤트가 종료되고 주가는 약 10일간 상승하는 패턴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술 자립, 미래산업 육성 등이 강조되며 단기적으로 중국 기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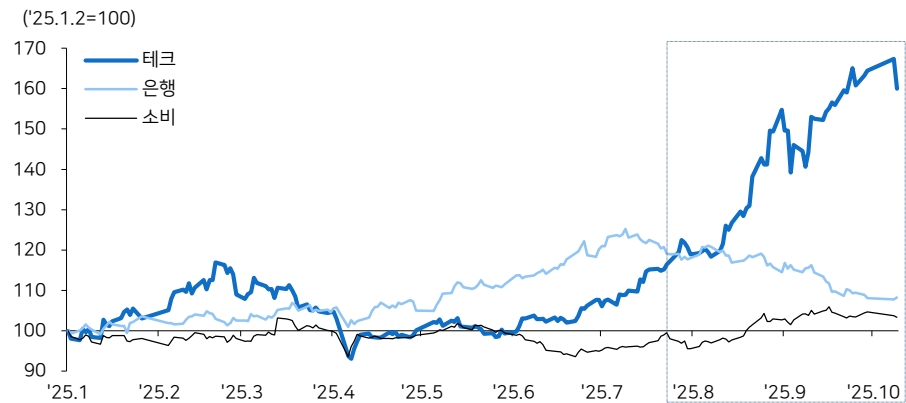
다만 굵직한 정책 이벤트가 종료되고, 4분기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성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지금까지 기술주만의 독주장세가 강해 일부 차익실현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은행, 유틸리티 등 고배당 업종으로의 방어하는, 보다 균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림2 과거 11차~14차 5개년 계획 건의안 공개 전후의 1개월 주가 흐름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주식시장 4분기 주요 리스크: 기술주로의 과도한 쏠림 경계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